

서혜영展

2007.11.22~12.16 금호미술관

서혜영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우리들이 쓰는 글에 어떤 방식으로

든 자전적인 요소가 담겨있듯이 미

술 작업에도 작가의 내면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묻어나기 마련이다. 2000년 이후 열린 개인전을 빠짐없이 봐왔기에 이번에도 서혜영의 작업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작업들은 상상 이상이였다. 캔버스 전체에 세밀하게 그려진 브릭이 아니었다면 서혜영의 작업인 줄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브릭은 라인테이프를 이용한 벽면드로잉, 합성수지로 만든 설치, 영상 등 그의 작업에서 빠짐없이 등장한 모티프다. 공간을 만들거나 가르는 브릭의 특성상 서혜영의 작업에서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 즉 내부와 외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공간만으로 이루어진 풍경에 인물이 등장한 것은 수태고지의 도상들을 연필로 그린 2003년 작품부터다. 그러나 이 인물들도 실상은 “물질이면서 비물질적인 두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간인 인간”이라는 작가의 언급처럼, 공간의 다른 얼굴로 볼 수 있다.

이번 전시 역시 〈Still Room〉이라는 제목처럼 또 다른 공간의 이야기로 읽힌다. 캔버스의 표면이 되어버린 브릭 위에 그려진 방 안 또는 방 밖의 풍경들. 하지만 이 풍경들은 그간 서혜영이 탐구했던 관념적인 공간들에 비해 지극히 현실적이다. 책이 빼곡히 들어찬 책장, 맨드라미가 가득한 화병, 아파트 복도... 그러나 은은한 단색조의 그림들은 익숙한 듯 새롭다. 편한 듯하면서도 불편하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세세하게 잡아낸 풍경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위태로움으로, 이 세상 너머의 일상인 듯한 낯섦으로 다가온다. 경계선 위에 존재하는 서혜영의 풍경은 그 어느 한편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은 모호함을 흘린다. 동시에 그 앞에 선 관객은 모호함에 흘린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는 작품제목처럼 캔버스 가득 꼼꼼하게 브릭을 그리고 그 위에 다른 형상들을 덧그린 작업들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작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전의 작업이 작가와 관객의 소통, 관객과 공간의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의 작업에는 작가의 내면 소통이 또 다른 요소로 추가되었다. 일상과 더불어 보다 ‘인간적’인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나 할까. 〈텃빈 신전〉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들여다보며 작업 과정에 대해, 제목의 개연성 또는 우연성에 대해 유추해본다. 여전히 작가의 생각을 알 듯, 모를 듯하다.

안경화 · 아르코미술관 수석큐레이터

